

공부로 이끄는 힘

완자 공부력

교과서 문해력
교과서가 술술 읽히는 서술어 3A

| 정답과 해설 |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13~15쪽



정답

- 1 ②
- 2 ① ㉠
- ② ㉡
- 3 ②
- 4 실었다
- 5 힘
- 6 ③

7 ① ㉡

② ㉠

8

그림	글	표
물건	사진	짐
컴퓨터	사람	신문 기사



풀이

- 1 첫 번째 문장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에 내다.'라는 뜻의 '심다'를 넣을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것, 수레, 짐승의 등과 같은 곳에 올린다.'라는 뜻의 '심다'를 넣을 수 있다.
- 2 ①은 짐을 탈것 위에 올린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이며, ②는 시집에 시를 수록한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이다.
- 3 ㉠은 수레에 물건을 올린 것이므로 '심다'가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것, 수레, 짐승의 등과 같은 곳에 올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 역시 트럭에 짐을 올린 것이므로 '심다'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과거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때 '심다'는 '실었다'와 같은 형태로 쓴다.
- 5 힘을 주어 물체를 밀거나 당기면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
- 6 ㉡의 '심다'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에 내다.'라는 뜻이므로 '수록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7 '저작권'은 글, 음악,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만든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자료의 이름, 만든 사람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 정보를 '출처'라고 한다.
- 8 제시된 문장에서 '심다'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에 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발표 자료에 수록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색칠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17~19쪽



정답

1 ① ㉠

2 ㉡

2 전하다

3 ④

4 ①

5 이야기 / 옛날

6 ①

7 ③

8 ③



풀이

- 1 ①은 옛날부터 불리던 노래가 지금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전하다'가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는 은우의 마음을 선생님에게 알린다는 의미이므로 '전하다'가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2 제시된 문장에서 '알리다'는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알게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다.'라는 뜻의 '전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3 ㉠의 '전하다'는 '뒤에 오는 시대나 지금 시대에 이어지거나 남겨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다.'라는 뜻의 '이어지다'와 뜻이 비슷하다.
- 4 말죽거리는 지금의 서울 양재동 주변을 부르던 말로, 이 이름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를 할머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다.
- 5 양재동의 말죽거리 이야기처럼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 6 ㉡의 '전하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린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 7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은 받는 사람이 그 일을 잘 떠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 8 해인이는 편지에서 체육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연습하는 서호에게 힘내라며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정답

1 ① (적다 | 만들다)

② (그림 | 수치)

2 기록한다

3 ②

4	작	등	물	식	사	용
	성	관	징	물	줄	기
	보	특	찰	주	변	록

5 (길쭉한 | 넓적한)

(부드럽게 | 뽀족하게)

6 ① ㉠

② ㉡

③ ㉢

7 1/15 / 1/15



풀이

- ①은 일기를 적는다는 것이므로 '기록하다'가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다.'라는 뜻이다. ②는 운동 경기에서 이론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기록하다'가 '운동 경기 등에서 세운 성적이나 결과를 수치로 나타낸다.'라는 뜻이다.
- 제시된 문장에서 '작성하다'는 '서류나 원고 등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다.'라는 뜻을 가진 '기록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의 '기록하다'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다.'의 뜻으로, '쓰다, 적다, 작성하다' 등의 낱말과 뜻이 비슷하다. '살피다'는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로, '관찰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이 글에서는 식물을 '관찰'하고 그 생김새 등을 '기록'하면, 이를 바탕으로 식물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민들레의 꽃은 노란색의 작고 길쭉한 꽃잎이 모여 이루어져 있고, 잎은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뽀족하게 생겼다.
- ①은 수첩에 연습 내용을 적는다는 의미이므로 '기록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와 ③은 수영의 결과를 시간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기록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정우의 수영 기록이 작년보다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알아보려면 작년의 기록에서 올해의 기록을 빼면 된다. 분은 분끼리, 초는 초끼리 계산하면, 정우의 수영 기록은 작년보다 1분 15초 앞당겨졌음을 알 수 있다.





정답

- 1 (동물 | 물건)
(살아가다 | 살펴보다)
- 2 ㉠
- 3 ㉡
- 4 ㉡
- 5 필요 / 여가 / 건강

- 6 ㉡
- 7 ㉢
- 8 ① (남극 | 북극)
② (멀리 떨어져 | 몸을 맞대고)
③ (비늘 | 깃털)



풀이

- 1 제시된 문장에서 '생활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 ㉡, ㉢의 빈칸에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다.'라는 뜻의 '생활하다'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은 식물인 바나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문장으로, '생활하다'를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의 빈칸에는 '열리다' 등과 같은 낱말을 쓸 수 있다.
- 3 ㉠에서 '생활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은 '따라가다'의 뜻이다.
- 4 이 글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이나 장소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5 공원, 체육관은 놀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이고, 시장, 편의점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약국, 병원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이다.
- 6 ㉢이 사용된 문장과 <보기>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생활합니다',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등의 말이 들어갈 수 있다.
- 7 '두껍다'의 반대되는 낱말은 '얇다'이다.
- 8 황제펭귄은 남극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추울 때는 서로 몸을 맞대고 생활합니다. 또 황제펭귄의 몸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두꺼운 깃털로 덮여 있습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1 ③
- 2 ②
- 3 ㉠
- 4 ③
- 5 수평
- 6 (키 | **몸무게**)
(**같은** | 다른)

- 7 ①
- 8 ① ㉠
② ㉠
③ L



풀이

- 1 제시된 문장에서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은 '변경하다'의 뜻이고, ②는 '가다'의 뜻이다.
- 2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하다.'의 뜻을 가진 '지속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3 ㉠과 ㉡의 빈칸에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의 '유지하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은 돈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므로 '바꾸다', '교환하다' 등의 낱말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4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뜻이 있는 '잡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5 이 글은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통해 수평을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무게가 같은 두 물체를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놓으면 수평을 잡을 수 있으므로, 시소를 탈 때 몸무게가 같은 두 사람이 받침점에서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 7 이 글은 우리 몸에서 소금이 하는 역할을 알려 주는 내용으로, ㉠은 사람은 소금이 있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 8 ㉢은 소금의 역할에 대해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의견에 해당하며, ①, ②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므로 사실에 해당한다.





독해 Point 이 글은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내용 중, 지역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글이에요.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과 지역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파악하며 읽어 보세요.

- 1 옛날에는 수원 팔달문 주변에 낮은 건물들이 모여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팔달문 주변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 높은 빌딩이나 넓은 도로 등이 생겼습니다. 수원 팔달문은 지금까지 수원 지역의 옛날과 달라진 모습 수원 지역의 옛날과 비슷한 모습 옛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변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날과 비슷한 모습도 있고, 달라진 모습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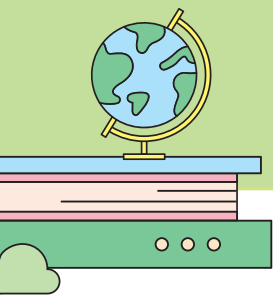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날과 비슷한 모습도 있고, 달라진 모습도 있습니다.

- 2 지역의 달라진 모습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누리집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살펴볼 수도 있고, 도서관이나 지역 박물관을 찾아가 책이나 자료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어른께 지역에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를 여쭙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께 여쭙어볼 때는 예의를 갖추어 질문하고, 들은 내용은 수첩에 ㉢기록합니다.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3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면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걸어 다녔습니다. 반면 오늘날에는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하여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지만, 요즘에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하여 분석하면 지역 사람들의 달라진 생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 1 ① (X)
 2 ② (O)
 2 ⑤
 3 ㉠, ㉡
 4 ④



- 1 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수원 팔달문처럼 옛날의 모습을 유지한 곳도 남아 있다.
 2 지역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그림은 실제 모습이 아니므로,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3 이 글을 통해 옛날에는 농사를 짓거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이다. ④의 경우, 음식 냄새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없애기 위해 창문을 연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유지하다'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37~39쪽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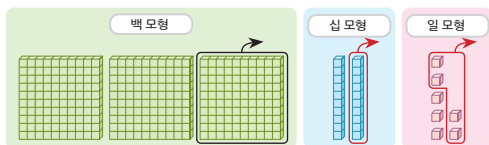
1 ① ㉠

2 ㉡

2 2/1

3 ①

4



5 2/1/3/213

6 ③

7 ①, ③

8 ①



풀이

- ①은 사탕의 개수를 적게 하는 것이므로 '덜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엄마의 일이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덜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보기>에서 '덜다'는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서 얼마를 떼어 줄이거나 적게 하다.'의 의미로, 그림을 통해 설명한다면 물의 양이 줄어들도록 나타내야 한다.
- '전체에서 일부를 제외하거나 덜어 내다.'의 의미를 가진 '빼다'가 비슷한 뜻의 낱말이다.
- '덜다'는 '일정한 수량이나 정도에서 얼마를 떼어 줄이거나 적게 하다.'라는 의미이므로, 327을 나타내는 수 모형에서 114만큼을 빼도록 표시한다.
- 4번 문제에서 남은 수 모형의 개수를 세거나, 이 문제에 제시된 뺄셈식을 계산하면 어부들이 오전에 잡은 물고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 ㉠에서의 '덜다'는 '행동이나 상태를 적게 하다.'라는 뜻으로, ㉡은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 ㉢에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
- 이 글은 환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 ㉡

2 ㉠ ㉡

2 ㉠ ㉡

2 ㉠ ㉡

3 ㉡

4 낸다 / 판다 / 탄다

5 ㉠ / ㉡

6 ㉡

7

꿀

버스

나무

소금

설탕

파도

식초

시소

미숫가루



풀이

- 1 ㉠ 바위를 잘 탄다고 하였으므로 '타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물에 꿀을 조금 섞는 것이므로 '타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과 ㉡의 '타다'는 '많은 양의 액체에 적은 양의 액체나 가루 등을 넣어 섞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와 ㉢의 '타다'는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등을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3 ㉠의 '타다'는 '나무 등을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라는 뜻이다.
- 4 딱따구리는 단단한 부리로 나무에 구멍을 내고, 다람쥐는 강한 발톱으로 나무를 잘 탄다. 두더지는 큰 앞발로 땅속에 굴을 파고 산다.
- 5 ㉠은 그네를 탄다고 하였으므로 ㉠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은 물에 꿀을 탄다고 하였으므로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6 단오에는 잘 익은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하였다.
- 7 '타다'가 '많은 양의 액체에 적은 양의 액체나 가루 등을 넣어 섞다.'의 뜻으로 사용된 문장이므로, 물에 섞을 수 있는 액체나 가루를 찾아 색칠한다.





정답

1 ① (없던 | 있던)

(없게 | 있게)

2 (냄새 | 생김새)

(모양 | 동작)

2 ① ㉠

② ㉡

3 ③

4



5 ②

6 ①

7 알 / 애벌레 / 번데기



풀이

- 1 ①은 그동안 없었던 도서관이 새로 지어졌다는 의미로, '생기다'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동생의 얼굴이 달걀 모양 같다는 의미로, '생기다'가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①과 ㉠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②와 ㉡의 '생기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3 ㉢의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물체가 어떤 곳에서 있지 않게 된다는 뜻의 '사라지다', '없어지다'가 ㉠과 반대되는 말에 해당한다. ③의 '만들어지다'는 ㉠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 4 이 글과 같은 방법으로 각을 만들었을 때 생기는 각은 직각이므로, 그림에서 두 선이 만나 직각을 이루는 곳에 각각 직각 표시를 한다.
- 5 ㉠은 배추흰나비의 알이 노란 옥수수과 비슷한 모양이라는 의미이므로 '생기다'가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뜻이다.
- 6 이 글에서 배추흰나비의 알은 작고 둥근 타원형으로, 노란 옥수수처럼 생겼다고 하였으므로, ①의 생김새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7 배추흰나비는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 자라고, 번데기가 된 후 번데기에서 어른벌레가 나온다. 이후 어른벌레인 배추흰나비가 다시 알을 낳으며 한살이가 되풀이된다.





정답

1 ①

2 ① L

② ㄱ

③ L

④ ㄱ

3 편리하다

4 ①

5 ③

6 ②

7 ① (쉽게 | 어렵게)

② (미끄러진다 | 미끄러지지 않는다)

8 ③



풀이

- 1 '편리하다'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의 의미를 가진다. ②는 '활용하다'의 뜻이고, ③은 '불편하다'의 뜻이다.
- 2 ①과 ③은 대상의 불편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고, ②와 ④는 편리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다.
- 3 ①의 앞부분에서 여러 장소를 상황에 맞게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처럼' 이후에 이어지는 ①에는 '편리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알맞다.
- 4 지호는 놀이터의 그네가 망가져서 탈 수 없다고 말하며 놀이터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반면에 수지와 승후는 도서관과 횡단보도에 대해 편리하게 느끼고 있다.
- 5 ③은 학교의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생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편리하다'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라는 뜻으로, ②는 돋보기를 사용하면 작은 대상을 크게 볼 수 있어 편하다는 의미이므로 '편리하다'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①, ③, ④의 쓰임은 적절하지 않으며, '편리하다'의 반대말인 '불편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7 오리발을 신으면 물에서 더 쉽게 헤엄칠 수 있어 편리하고, 등산화를 신으면 등산을 할 때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편리하다.
- 8 이 글은 오리발이나 등산화처럼 동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만든 편리한 생활용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53~55쪽



정답

1 관리한다

2 ㉠

3 ㉢

4 ㉢

5 ㉠

6 ㉢

7 ㉠ ㉡

㉡ ㉢

㉢ ㉠

㉠ ㉡



풀이

- 1 제시된 문장에서 '유지하다'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뜻으로,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거나, 보완하여 고치는 등의 일을 맡아 하다.'라는 뜻의 '관리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2 ㉠에는 '관람하다'와 같은 낱말이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3 '관리하다'는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거나, 보완하여 고치는 등의 일을 맡아 하다.'의 뜻을 가진다. ㉡는 '교대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장독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주기적으로 장독을 열어 장이 잘 익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5 이 글은 장독을 관리하는 방법과 이유 등 우리 조상들이 장독을 소중히 관리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6 이 글에서 '관리하다'는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거나, 보완하여 고치는 등의 일을 맡아 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호하여 남기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하다.'라는 의미의 '유지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 7 이 글을 통해 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주고, 경찰서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며,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을 배달하고, 소방서에서는 응급 환자를 구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해 Point 이 글은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내용 중, 생활 속 로봇에 대해 살펴보는 글이에요. 생활 속 로봇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로봇과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며 읽어 보세요.

- 1 어떤 가게에서는 점원과 로봇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이 로봇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면서 사람의 일손을 **덜어** 줍니다. 이렇게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어떤 로봇은 농장에서 과일을 따서 담기도 하고, 또 어떤 로봇은 카페에서 사람과 함께 커피를 **③ 탑니다**.

⇒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을 도와 일하는 **협동 로봇**이 있습니다.

- 2 ㉠ 우리 주변에는 협동 로봇 외에도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집에서는 로봇 강아지와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생김새도 꼭 강아지처럼 **생겼습니다**. ㉢ 또 로봇 청소기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바닥을 자동으로 청소를 해 주어 **편리합니다**. ㉣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로봇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 그리고 배달 드론 로봇은 사람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곳에 물건이나 음식을 대신 배달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의 예 ①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의 예 ②

우리 주변의 다양한 로봇의 예 ③

⇒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로봇이 있습니다.

- 3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을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로봇에 대한 연구 내용 ①

로봇에 대한 연구 내용 ②

⇒ 로봇 연구자들은 로봇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4 로봇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 생활 속 로봇은 더 발전하게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의 일을 도와서 함께 하거나, 사람의 일을 대신 해 주는 로봇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훨씬 더 **편리해질** 우리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생활 속 로봇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

⇒ 생활 속 로봇은 더 발전하여 미래의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질 것입니다.



- 1 ④
- 2 ④
- 3 ②
- 4 로봇 / 편리



- 1 이 글에서 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로봇을 꾸준히 관리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 2 ㉡문단은 사람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다양한 로봇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므로, 로봇의 부정적 영향을 말하고 있는 ㉢은 문단의 흐름상 적절하지 않다.
- 3 ㉠의 '타다'는 '많은 양의 액체에 적은 양의 액체나 가루 등을 넣어 섞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뜻으로 '타다'가 사용된 것은 ㉡이다. ㉠과 ㉤의 '타다'는 '도로, 줄, 산, 나무, 바위 등을 밟고 오르거나 그것을 따라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과 ㉣의 '타다'는 '탈것이나 짐승의 등과 같은 곳에 몸을 엮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4 이 글에서 글쓰이는 가까운 미래에는 사람의 일을 돕거나 대신 해 주는 로봇이 우리 주변에 훨씬 더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1 ① ㉠
② ㉡
2 ① ㉠
② ㉡
3 ②
4 ③

- 5 ③
6 ③
7 (가파르다 | 완만하다)
(느리다 | 빠르다)
8 ②



풀이

- 1 ①은 산의 경사에 대한 내용으로 '급하다'가 '기울기나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급하다'가 '성격이 팔팔하여 참을성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2 ①은 성격이 급하다는 내용으로, 반대되는 말은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라는 뜻의 '느긋하다'이다. ②는 경사가 급하다는 내용으로, 반대되는 말은 '경사가 급하지 않다.'라는 뜻의 '완만하다'이다.
- 3 ㉠은 성격이 급하다고 하였으므로 '급하다'가 '성격이 팔팔하여 참을성이 없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뜻에 반대되는 말은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라는 뜻의 '느긋하다'이다.
- 4 두 까마귀는 물병을 발견했지만, 물병의 주둥이가 좁아 부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물을 마시지 못했다.
- 5 ㉡의 까마귀는 물병을 밀었지만 물병이 기울어지지 않자 바로 그곳을 떠나며 성급하게 행동하였다. 반면 <보기>의 까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차분하게 생각한 뒤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 6 ㉠은 산이나 언덕의 경사가 가파르다는 의미로, ③의 모습과 유사하다.
- 7 '급하다'는 '기울기나 경사가 가파르다.'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강의 물살이 급해서 건너기 어렵다.'와 같은 문장에서 '물결 등의 흐름이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8 산양은 추운 고산 지대에 살고 있어,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털로 몸이 덮여 있다.





정답

1 ① (보다 | **찾다**)2 (**벗어나게** | 살아가게)

2 구했다

3 ①

4 ②

5 (**믹서기** | 전자렌지)(**갈았다는** | 익혔다는)

6 ㉠ / ㉡

7 3 / 2 / 4 / 1



풀이

- ①은 필요한 물건을 구했다는 의미로, '구하다'가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②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다는 의미로, '구하다'가 '위태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제시된 문장에서 '찾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었다는 의미이므로,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뜻을 가진 '구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은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와 ③은 '구하다'가 ㉠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①의 '구하다'는 '위태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오래된 물건을 살펴보면 그 물건을 사용하던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맷돌은 오늘날처럼 믹서기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을 때 곡식을 갈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이다.
- ㉠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위태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은 필요한 것을 찾아 얻는다는 의미이므로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뜻에 해당한다.
- 반달곰은 처음 만난 너구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너구리는 그 뒤 반달곰을 여러 번 골탕 먹였고, 구덩이에 빠지는 위험에 처한다. 그 상황에서 너구리는 반달곰에게 용서를 빌고, 반달곰은 너구리를 구덩이에 서 꺼내 준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69~71쪽



정답

- 1 (원래 없던 | 이미 있는)
(그대로 따라 | 다르게 바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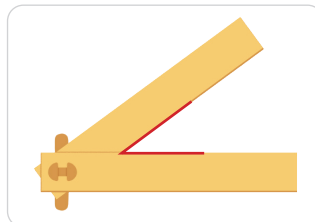
2 ②

3 ①

4 ②

5 ①

6



7 ①

8 본뒀습니다

9 ③



풀이

- 1 '본뜨다'는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다.
- 2 '본뜨다'는 '본떠', '본뜨니'와 같이 쓸 수 있으며, 제시된 문장에서는 '본떠서'와 같이 쓰는 것이 적절하다.
- 3 이 글은 'ㄱ, ㄴ, ㄹ, ㅁ, ㅂ, ㅇ'이 소리가 나오는 곳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 만들었다고 하면서 'ㄹ'과 'ㅇ'을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본뜨다', '모방하다'와 같은 말이 들어가야 한다.
- 4 ㉠은 삼각자의 세 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라는 의미이다.
- 5 각은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삼각자에는 세 꼭짓점을 중심으로 세 개의 각이 있다. 따라서 삼각자의 세 각을 바르게 본뜬 것은 ㉠이다.
- 6 접자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자이다. 그림 속 접자가 벌어진 곳에는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각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각이 생긴 곳을 그대로 따라 그려서 각을 본뜬다.
- 7 배추흰나비의 알은 옥수수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므로 '닮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 8 ㉢은 이 글에 사용된 낱말 중 '본뜨다'와 뜻이 비슷하므로, '본뒀습니다'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 9 이 글에 제시된 사진으로 볼 때 네덜란드의 의자는 튕립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1 (똑같지만 |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 **일치하는**)
- 2 ①
- 3 ②
- 4 (숨다 | **트다**) (**자라다** | 자르다)
 (솟다 | **피다**) (매다 | **맷다**)

5 ②

6 ①

7 ④

8 ③



풀이

- 1 제시된 문장에서 '비슷하다'는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등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다.
- 2 ①~④은 두 대상이 서로 유사하다는 의미의 '비슷하다'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①은 문장에 하나의 대상만 나와 있어서 '비슷하다'를 사용할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 3 ①에서 '비슷하다'는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등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므로, ①은 두 식물의 한살이 과정 중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이다.
- 4 벼는 법씨에서 싹이 튼 뒤 잎과 줄기가 자란다.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시 씨를 만드는 한살이의 과정을 거친다.
- 5 벼는 한살이의 과정을 한 해 안에 거친 뒤 죽지만, 사과나무는 여러 해를 살면서 한살이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 6 '맵다'와 '매콤하다'는 뜻이 비슷한 낱말로, 둘 다 매운맛을 표현한다.
- 7 '편리하다'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라는 뜻이고, '불편하다'는 '어떤 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거북하거나 괴롭다.'라는 뜻으로 두 낱말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낱말이다.
- 8 '불그스름하다'는 '조금 붉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불그스레하다'와 뜻이 비슷하다.





정답

- 1 ①
- 2 ②
- 3 ㉠
- 4 ②
- 5 사막 / 부족

6 ②

7 ③

8

정	검	보	확	사	이
리	자	색	용	인	혜
보	료	찰	저	장	수



풀이

- 1 '저장하다'는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의 의미를 가진 낱말이다. ②는 '숨기다'의 뜻에 해당하고, ③은 '정리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저장하다'는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두거나 저축하다.'라는 뜻의 '비축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3 '저장하다'는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이다. ㉠은 씨에서 싹이 나게 하려는 것이므로 '심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①은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의 '저장하다'와 같이 바꾸어 쓸 수 있다.
- 5 이 글은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식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6 선인장과 알로에는 물에 부족한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해 두는 특성이 있다.
- 7 ㉠에서 '저장하다'는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이다. 이때 '저장하다'가 디지털 기기와 관련하여 쓰일 때는 파일을 컴퓨터 등의 기기에 보관한다는 의미이다.
- 8 지역의 달라진 모습과 관련하여 사진 자료가 필요할 때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하고, 살펴본 사진 중 필요한 사진을 '저장'한다.





독해 Point 이 글은 3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내용 중, 동물의 생활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글이에요. 환경에 따라 동물의 생김새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이를 본떠 만든 생활용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며 읽어 보세요.

- 1 동물은 숲, 강이나 바다, 고산 지대, 사막, 극지방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물이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사는 곳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산 지대는 춥고 경사가 급합니다 이곳에 사는 눈표범은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털이 두껍고, 경사가 급한 곳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다리 근육이 발달하였습니다.

⇒ 동물의 생김새와 생활 방식은 동물이 살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2 사막과 같이 살기 어려운 곳에도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무덥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에서는 물이나 먹이를 구하려면 멀리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에 사는 낙타는 혹에 지방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과 먹이가 없어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막여우는 큰 귀로 열을 내보내서 사막의 뜨거운 기온에서도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사막여우의 생김새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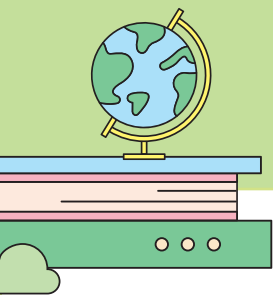
⇒ 사막과 같이 살기 어려운 곳에도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 3 사람들은 이런 동물의 독특한 생김새나 특징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기중기의 집게는 독수리의 발톱 모양과 ㉠. 독수리의 발톱은 날카롭고 구부러져 있어서 먹이를 움켜쥐면 놓치지 않는데, 기중기의 집게도 이러한 모양을 본떠서 물건을 잘 집어 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동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이용하여 기중기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 4 상어의 피부를 본떠서 만든 전신 수영복도 있습니다. 상어의 피부에는 바닷속에서 마찰을 줄여 주는 돌기가 있습니다. 이 수영복의 표면도 상어의 피부와 비슷하여 빠르게 헤엄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동물은 사는 곳에 따라 다양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편리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동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전신 수영복과 같이 편리한 생활용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 1 ① ○ ② ○ ③ ✕
- 2 (급하다 | 완만하다) (낮다 | 높다)
(온다 | 오지 않는다)
(물 | 열)
- 3 ②
- 4 비슷합니다



- 1 ③ 같은 환경에서 사는 동물은 생활 방식이나 특징이 비슷할 수 있지만, 낙타와 사막여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동물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
- 2 고산 지대는 좁고 경사가 급하다. 사막은 비가 잘 오지 않고 기온이 높으며, 사막여우는 큰 귀로 열을 내보낸다.
- 3 상어의 피부에 있는 돌기가 빠르게 헤엄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본떠 전신 수영복을 만든 것이다.
- 4 '두 개의 대상이 크기, 모양, 상태, 성질 등이 똑같지는 않지만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많은 상태에 있다.'를 뜻하는 낱말은 '비슷하다'로, 기중기의 집게는 독수리의 발톱 모양과 비슷하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정답

1 ②

2 ① ㉠

② ㉡

③ ㉢

3 ②

4 ① (뽑다 | 뽑히다)

(뽑다 | 뽑히다)

② (열다 | 열리다)

(열다 | 열리다)

5 ①

6 ①

7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 오늘 /

일주일 / 지난주 / 내일

8

풀

뿌리

대표

나무

못

회장

발표자

주인공

선수



풀이

- 첫 번째 문장에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의 뜻을 가진 '뽑히다'가, 두 번째 문장에는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의 뜻을 가진 '뽑히다'가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①의 '뽑히다'는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의 뜻으로, ②와 ③의 '뽑히다'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은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의 뜻으로, '빠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①에서 '뽑다'는 문장에서 '못을 뽑다'와 같이 사용되고, '뽑히다'는 '못이 뽑히다'와 같이 사용된다. ②에서 '열다'는 '병뚜껑을 열다'와 같이 사용되고, '열리다'는 '병뚜껑이 열리다'와 같이 사용된다.
- 이 글을 통해 지레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려야 할 때 사용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 여러 친구들 중 '나'가 안전 도우미가 되었다는 의미로, ㉠의 '뽑히다'는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이 글은 일기로, 여러 시간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제시된 문장에서 '뽑히다'는 '나'가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89~91쪽



정답

1 ②

2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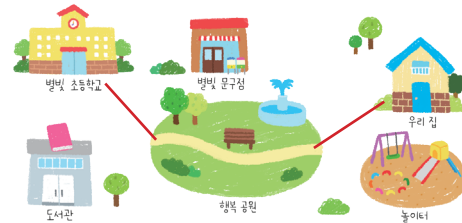
② ㉡

③ ㉢

3 ①

4 ③

5



6 ①

7 (뚫려 | 싸여) (갈려 | 덮여)(나뭇 | 바뀜) (나을 | 낳을)

풀이

- 첫 번째 문장에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를 뜻하는 '거치다'가 들어가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를 뜻하는 '거치다'가 들어가야 한다.
- ①은 기차가 대구를 지나서 부산으로 간다는 뜻이므로 '거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는 고쳐쓰기의 과정을, ㉢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므로 '거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①은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뜻으로 ②, ③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이 글을 통해 심상지도는 특정한 장소를 더 강조하여 그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세연이는 학교에서 공원을 거쳐 집으로 간다고 하였으므로, 이 내용이 드러나도록 선을 잇는다.
- 동물의 한살이는 동물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한살이를 거친다.'라는 것은 ①의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의미이다.
- 단단한 껍데기에 싸여 있는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난다. 병아리는 처음에는 솜털로 덮여 있지만, 솜털이 깃털로 바뀌며 자란다. 다 자란 암탉은 알을 낳을 수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본문 93~95쪽



정답

1 헤아리다

2 ① ㉠

2 ㉡

3 ①

4 ① 3/6/9

2 369

5 ④

6 ①

7 ③



풀이

- 제시된 문장에서 '세다'는 '수량을 세다.'의 의미를 가진 '헤아리다'와 뜻이 비슷하여 바꾸어 쓸 수 있다.
- ①은 마음을 미루어 짐작한다는 의미이므로 '헤아리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②는 상자에 담긴 공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이므로 '헤아리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③은 수 모형의 개수를 센다는 의미이므로 '세어 봅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은우네 밭에서 하루 동안 수확한 고구마의 수를 구하려면 오전에 수확한 고구마의 수와 오후에 수확한 고구마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때 각 자리의 수 모형 개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 ①과 ④의 '헤아리다'는 '짐작하여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③의 '헤아리다'는 '수량을 세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①은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글을 전해 주는 상황을 떠올려 본 것이다.
- 마음을 전하는 글은 받을 사람에게 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자신의 마음을 담아 써야 한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 | | |
|-----|-----|
| 1 ① | 5 ① |
| 2 ③ | 6 ④ |
| 3 ㉠ | 7 ① |
| 4 ② | 8 ③ |



풀이

- 1 '활용하다'는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라는 뜻이다. ②는 '관찰하다', ③은 '공유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 2 '활용하다'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라는 뜻의 '이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3 '활용하다'는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 ㉡, ㉢의 빈칸에 넣어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하지만 ㉣은 문장의 흐름상 '확인하다'와 같은 낱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 4 이 글에서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를 찾아 잘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 5 햄버거는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으로, 사람들이 햄버거 매장을 많이 찾은 것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과거에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많았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없다.
- 6 '활용하다'는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쓰다'나,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와 말투를 활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도 잘 표현할 수 있다.
- 8 그림 속 상황은 넘어져서 다친 친구에게 하는 말이므로 안타까워하며 걱정하는 말투를 활용하여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다.





부족함



보통



잘함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②

5 ①

6 ②

7 찾아봅니다

8 ①



풀이

- 1 '검색하다'는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낸다.'라는 뜻이다. ①은 '확인하다'의 뜻이다.
- 2 두 문장은 정보를 얻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검색하다', '살펴보다', '찾아보다' 등의 낱말을 쓸 수 있다. ③의 '지정하다'는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 등의 뜻으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 3 '검색하다'는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낸다.'라는 뜻으로, ①, ②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③은 그림을 카메라로 '찍다', '촬영하다' 등의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검색하다'는 '책이나 컴퓨터에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낸다.'의 뜻으로, ①은 누리집에서 살펴보고 싶은 장소의 사진이나 영상을 찾아본다는 의미이다.
- 5 검색창에 찾고 싶은 장소의 이름이나 주소를 입력하고 돋보기 단추를 누르는 것은 '검색하다'라는 낱말로 나타낼 수 있다.
- 6 ②는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 7 ①의 '검색합니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봅니다.'의 '찾아봅니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8 도서 검색대에서는 책 제목뿐만 아니라 글쓴이나 출판사 등으로도 책을 검색할 수 있다.





독해 Point 이 글은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내용 중, 발표에 대해 살펴보는 글이에요. 발표 준비와 발표 예절에 대해 이해하며 읽어 보세요.

- 1 발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발표를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발표의 의미

⇒ 발표는 정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활동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 2 발표 준비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선 발표 주제를 정합니다. 주제를 정할 때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흥미 있는 내용으로 선택하면 발표를 더 즐겁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다면 책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봅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찾았다면, 그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합니다.

발표 준비 과정 ①

발표 준비 과정 ②

발표 준비 과정 ③

⇒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아 정리하며 발표를 준비합니다.

- 3 발표 시간에는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친구가 발표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표자로 뽑히거나 발표할 차례가 되었다면 준비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발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서서 친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발표합니다.

발표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①

발표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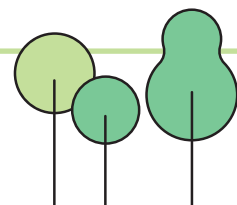
⇒ 발표를 할 때에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 4 발표를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혹시 친구의 발표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친구가 속상하지 않도록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질문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배려하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발표를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 ①

발표를 들을 때 지켜야 할 예절 ②

⇒ 발표를 들을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 1 ㉔
- 2 2/3/1
- 3 ㉔
- 4 배려 / 발표 예절



- 1 ㉔ 발표를 들을 때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질문할 수 있다.
- 2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주제를 정하고, 책이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본 뒤, 찾은 자료를 정리한다.
- 3 ㉔은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라는 뜻으로, ㉔의 '뽐히다' 역시 ㉔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㉔, ㉔, ㉔, ㉔의 '뽐히다'는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라는 뜻이다.
- 4 이 글에서 글쓴이는 발표 예절을 잘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발표를 하자고 하였다.



공부한 서술어를 활용해 말풍선을 완성하세요.





실력 확인

1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06~107쪽

- | | | |
|-----------------|---------|--------|
| 1 ㉠ | 2 ㉡ | 3 ㉢ |
| 4 ㉣ | 5 ㉤ | 6 ㉥ |
| 7 ㉦ | 8 ㉧ | 9 ㉨ |
| 10 ㉩ | 11 ㉪ | 12 급하다 |
| 13 활용하다 | 14 유지하다 | |
| 15 ㉫ 생기다 ㉬ 기록하다 | | |

1 '본뜨다'의 뜻에 해당한다.

2 '심다'의 뜻에 해당한다.

3 '관리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4 ㉤은 '생기다'의 뜻에 해당한다.

5 ㉣은 '기록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6 밥이 너무 많아 적게 하려는 것이므로 '덜다'를 사용한다.

7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를 때 '거치다'를 사용한다.

8 마음을 짐작하여 가능하거나 미루어 생각할 때 '헤아리다'를 사용한다.

9 '식초를 조금 탄다'에서 '타다'는 '많은 다량의 액체에 적은 소량의 액체나 가루 등을 넣어 섞다'의 뜻으로, '섞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10 첫 번째 문장은 '박힌 것이 잡아당겨져 빼내지다.'라는 뜻의 '뽑히다'를 쓸 수 있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럿 가운데에서 골라지다.'라는 뜻의 '뽑히다'를 쓸 수 있다.

11 ㉠, ㉢의 '구하다'는 '필요한 것을 찾다. 또는 그렇게 하여 얻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의 '구하다'는 '위태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12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므로 '급하다'를 사용한다.

13 물건을 충분히 잘 이용한다는 뜻이므로 '활용하다'를 사용한다.

14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거나 지탱한다는 뜻이므로 '유지하다'를 사용한다.

15 세로 ㉠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된다는 뜻이므로 '생기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가로 ㉡는 기억할 내용을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공책에 적는다는 뜻이므로 '기록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2회

○ 맞힌 개수

/ 157개

본문 108~109쪽

- | | | |
|------|---------|---------|
| 1 L | 2 ㉠ | 3 ㉡ |
| 4 ㉢ | 5 ㉣ | 6 ㉤ |
| 7 ㉥ | 8 ㉦ | 9 ㉧ |
| 10 ㉨ | 11 ㉩ | 12 ㉪, ㉫ |
| 13 ㉬ | 14 헤아리다 | 15 검색하다 |

- 1 '덜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적게 하다.'라는 뜻이다.
- 2 '생기다'는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라는 뜻이다.
- 3 '저장하다'는 '물건을 모아서 잘 보호하거나 보관하다.'라는 뜻이다.
- 4 '활용하다'는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라는 뜻이다.
- 5 성격이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므로 '급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6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므로 '급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7 문장의 앞부분은 시설이 갖추어져 이용하기에 편하고 쉽다는 것이므로 '편리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뒷부분은 기구가 낡아 편하지 않다는 것이므로 '불편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8 ㉠과 ㉡의 '싣다'는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것, 수레, 짐승의 등과 같은 곳에 에 올린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의 '싣다'는 '글, 그림, 사진 등을 책이나 신문 등의 출판물에 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9 잡초의 줄기가 외부의 힘에 의해 빼내진 것이므로 '뽑히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0 삼각자를 놓고 그대로 따라 그렸다는 뜻이므로 '본뜨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생활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다.'라는 뜻이다. ㉡는 '없다'의 뜻에 해당하며, ㉢은 '관리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12 두 동물의 공통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므로 '비슷하다', '유사하다'와 같은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3 ㉡ '거치다'는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 혹은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물건이 가로질러 걸렸을 때는 '걸치다'라고 쓰는 것이 알맞다.
- 14 굴의 개수를 세는 것이므로 '헤아리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15 누리집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므로 '검색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회

○ 맞힌 개수

/ 15개

본문 110~111쪽

- | | | |
|---------------------------|------------------|--------|
| 1 헤아리다 | 2 기록하다 | 3 검색하다 |
| 4 유지하다 | 5 ㉠ | 6 ㉢ |
| 7 ㉡ | 8 ㉦ | 9 ㉣ |
| 10 ㉤ | 11 ㉧ | 12 ㉥ |
| 13 ㉨ | 14 ㉠ 생활하다 ㉡ 활용하다 | |
| 15 생겼습니다 / 편리했습니다 / 비슷했지만 | | |

- 1 '헤아리다'의 뜻에 해당한다.
- 2 '기록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3 '검색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4 '유지하다'의 뜻에 해당한다.
- 5 위태롭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살리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6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따라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모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 7 대전을 가는 중에 천안을 지나거나 들르는 것이므로 '거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8 한살이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거치다'가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 9 걱정이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덜다'가 적절하다.

- 10 창고에 보관한다는 의미이므로 '저장하다'가 적절하다.
- 11 분유 가루를 물에 섞는다는 의미이므로 '타다'가 적절하다.
- 12 마음을 알려 준다는 의미이므로 '전하다'가 적절하다.
- 13 제시된 문장에서 '급하다'는 '기울기나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뜻으로, 반대되는 낱말은 '경사가 급하지 않다.'라는 뜻의 '완만하다'이다.
- 14 세로 ㉠은 붕어가 강이나 호수에서 산다는 의미이므로 '생활하다'가 적절하다. 가로 ㉡는 발표할 때 매체 자료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므로 '활용하다'가 적절하다.
- 15 옛날에 사용했던 토큰은 동전처럼 생겼다. 토큰을 사용하면 거스름돈을 받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고, 버스를 탈 때 돈 대신 낼 수 있다는 점은 돈과 비슷했다.